

# 청년주보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그림 | 박세실리아

**입당송**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 1-5

**화답송** 시편 98(97), 1, 2-3ㄱ-ㄴ, 3ㄷㄹ-4, 5-6(◎ 2 참조 또는 3ㄷㄹ)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 9-18

**복음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 16-20

**영성체송**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성당에서 뭐 하니?

### 왕십리 성당편

#### 우리 본당에는 열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들이 있어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왕십리 성당에는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는 발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놀 때는 땅이 무너지도록 놓고, 기도할 때는 하늘로 올라갈 기세인 멋진 공동체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별 활동은 주춤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반기고 다독이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청년을 필요로 할 때 단합이 잘 돼요.

우리 청년들은 본당에 큰 행사가 있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잘 뭉칩니다. 작년 왕십리 성당은 본당 설립 60주년이라는 큰 경사를 맞이했었는데, 이때 청년들은 사진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고, 바자회에 참여하는 등 교회 공동체의 부름에 즐겁게 응답하였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 본당 청년들은 매주 코로나 관련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미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이후, 전례봉사를 제외한 모든 단체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대신 왕십리 성당 청년들은 매주 성당마당에서 청년미사 참석자들의 체온을 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에는 성전 방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선교! 온라인 복음선포!!



김도연 스테파노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시도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리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봉사자 회합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방송으로 주일미사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회도 시대의 징표를 읽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복음선포의 시도는 그것의 완성을 일일이 평가하기에 앞서 마땅히 권장하고 격려하여야 할 교회의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식별하여 좋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식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편협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는 자극적인 영상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의 홍보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과장을 서슴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영상들은 기업의 과도한 상술과 채널운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시청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신종 ‘낙시’라 해도 무방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업의 홍보에 설득당하여 지갑을 열게 되는 구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과장이 난무하는 미디어 시장 한복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올바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복음선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면 감동이 없고 감동을 추구하면 재미가 없다는 딜레마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에 과장과 거짓이라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복음서의 저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마르 1,22 참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만 구독자쯤은 우습지 않은 탑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를 통해 쉽고 명료하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기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담보하지 않은 가르침은 그 어떤 힘도 권위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정답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때로는 재미만 추구하다 복음적 가치를 놓칠 수 있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 각자가 온라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자신의 삶으로 복음적 가르침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의 진실된 삶이 일치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힘과 권위를 가진 메시지 선포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증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 주님이 머문 자리

항상 시끌벅적하던 교실.  
원격수업으로 인해 적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며 청소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스레 빛으신 아들딸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학교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송슬기 미카엘 / 등촌3동 성당]

왕십리 성당 청년들아~

## '추천하고 싶은 가톨릭 도서/영화있니?'



**A 추석에 그 영화 봤어? : 영화**

**<사자> (使者 : The Divine Fury)**

연휴에 채널을 돌리는데 영화 <사자>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 영화지만, 박서준이 멋있어서 한 번 더 감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던, 구마 사제 '안신부' (안성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안신부의 처절한 싸움과 '용후' (박서준)의 용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고백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나 언제나 제 안에 있었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언어를 다시 깨닫게 하였습니다. 영화는 끝났어도, 제 가슴 속에서 그 여운은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_ 고상혁 바실레오



**A 하느님의 손가락 같은 삶 : 책**

**<천국의 열쇠> - A.J. 크로닌**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참된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는 하느님의 손가락, 그것은 '교리'가 아닐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치섬 신부'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듯이 하느님 손가락 너머의 그 큰 사랑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당 밖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음을 새기며, 오늘도 미사 속에서 사랑, 감사, 용서, 평화를 다짐해봅니다. \_ 이승진 토마스아퀴나스



**A 알아두면 어디든 쓸데 있는 : 책**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시리즈 - 박승찬**

세상 모든 일은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형제의 성질이 더럽다고 천성이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대개 어린 시절 폭군처럼 군림했던 당신을 보고 배웠거나 그런 당신에게 복수하려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물며 수십억 현대인의 생활과 사상을 지배하는 지상 최대의 종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겠습니까? 이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갖 철학자, 과학자, 전쟁광, 로맨티스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며 반짝반짝 광나게 사포질한 결과인 셈이죠. 3권까지 있는데 알아두면 미사를 드리다가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되었군." 하는 정도의 유익을 뽐낼 수 있게 됩니다. 세련된 도시 종교인이 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_ 김지혜 안나



**A 어쩌면 지금도 내 곁에 있을 그 남자 : 영화**

**<맨 프럼 어스>**

한 남자가 친구들에게 본인이 14,000년을 살아온 불사의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석가모니를 만나 받은 가르침을 로마 치하의 중동에서 설파하다 십자가 형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인도에서 배웠던 민간요법으로 겨우 죽다 살아났다고 하자 이웃들은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는 예수일까, 아닐까?' 정답만 찾으려던 제게 <맨 프럼 어스>는 다른 눈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언제나 제 주위에 있고, 저를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깊은 가르침을 전하려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성당에서만 예수님을 찾던 저를 출근길에, 회의 중에, 침대에서 흐느끼다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저로 성장케 해 주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다시 봐야겠네요! \_ 구민정 드보라



내.알.맞  
마.아.춤  
음.주.성  
을.는.구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못 갈 때**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집회 39,33)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선교’라는 말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일부 물지각한 종교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성령강림 대축일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는 제목으로 전교 주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선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롭고 의식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이러한 부르심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자세에 대해 자문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이웃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느님처럼 우리도 주변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청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강신주 율리안나 / 수색 성당

주일학교 교사 퇴임 후 신앙생활을 멀리하며 지내고 있을 때, 같이 교사를 했던 친구의 권유로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미사였기에 약간의 걱정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고해성사 때 신부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신앙생활에 너무 소홀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꾸준히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자연스럽게 여행지 주변의 성당을 찾아보고 주일 미사에 참여했던 시간이 굉장히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느님의 이 질문은 너그럽고 확신에 찬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하느님께서 세상과 민족들에게 파견하실 수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기대하십니다(마태 9,35-38; 루카 10,1-12 참조). - 프란치스코 교황 전교 주일 담화문 중 -

[출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편집부 현성혁 베드로]

### 2020년 청년전례학교 초급 3차

일 시 11월 7일(토) 12:00~18:00

대 상 전례에 관심있는 청년 (본당별 선착순 2명)

교육비 15,000원

신 청 10월 20일(화) 14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